

日출판계에 부는 절판도서 복간열기

「리더스다이제스트」 등 미국잡지는 소련 상륙 채비

이봉호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일본출판계의 VAN구축구상

최근 일본 출판계에서는 업계 VAN(부가가치통신망)을 구축, 활용하자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출판계 VAN구축 구상은 일본 전신전화(NTT) 데이터통신사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범용VAN '투인네트'에 출판유통회사와 서점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정보망을 접속, 재고도서 정보와 수·발주정보를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일본VAN구축 구상이 실현될 경우 일본의 다른 업종에 비해 첨단화가 뒤져 있는 출판계의 정보화가 다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구상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것은 講談社 講談社는 올 2월부터 東京출판판매 등 도서유통회사 4개사와의 사이를 '투인네트'로 연결, 도서제고에 관한 정보를 교환기로 했다. NTT데이터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범용VAN 서비스 '투인네트'는 호환성이 높아 다양한 기종에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NTT 데이터통신사의 이같은 장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통신규약과 갖가지 컴퓨터기종을 가지고 있는 출판계에 있어서도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하다. 講談社는 이같은 점에 착안, 업계 VAN구축 구상을 일본출판계에 제안했다.

현재 일본 출판계의 정보화는 첨단과학의 세계 제1국이라는 평가에 걸맞지 않게 낙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출판계의 각 단체, 업체가 각각 자기 이익옹호 제일주의로 정보망 구축을 진행시켜왔기 때문에 출판계 전체로 볼 때 낭비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상황으로는 일본 출판계 각 사가 정보화에 투자한 노력에 비해 소비자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소리가 많다.

현재 일본 출판관련 업계의 정보화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도서유통회사들은 계열사를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통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 일본서점조합연합회(日書連)도 자기들 나름의 정보망을 만들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일본 출판사들은 서점에서의 매출정보조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본 출판관련 업계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방향에서 정보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물론 출판업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출판업계의 업계 VAN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은 이기주의의식. 그리고 최대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업계VAN에 日書連의 정보망을 연결시켜줄 것인가 아닌가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 보면 서점들의 정보망구축에의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유통회사들은 日書連의 정보네트워크가 출판사에 연결될 경우 거액을 투자 구축해놓은 자신들의 정보망이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 또다시 논의되고 있는 일본 출판계의 업계VAN구축 구상이 구상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만 하면 일본 출판계는 정보화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가 될 것이라는 소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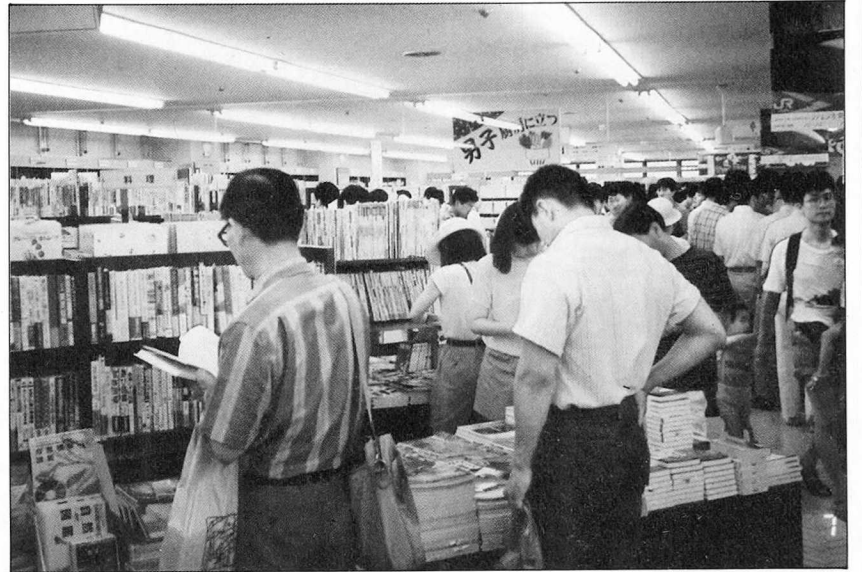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 추세는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정보화 전문가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앞날을 내다보며 융통성이 있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판계 역시 그 초기단계부터 출판계의 정보화를 구축한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품질된 일본책 리바이벌 붐

최근 일본 출판계에는 때이던 리바이벌 붐이 불고 있다. 오랫동안 품질되었던 책을 복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 속에 문혀 버렸던 책에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해본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독자들에게 의외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통해 최근 책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는 현상이 다소나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東京북페어가 열렸던 지난해 7월에는 河出書房新社, 講談社, 集英社, 晶文社, 新潮社, 中央公論社, 白水社, 早川書房 등 8개 출판사는 품질되었던 해외문학 번역서 총 41점을 일제히 복간했다. 특정 출판사에서만 복간했을 경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지만 주요 출판사 8개사에서 일제히 내놓은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본 출판사들의 동시복간으로 책방에 나온 책들은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으면서 판매가 호조를 띠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3쇄, 4쇄까지 판을 거듭 찍은 책도 있을 정도로 또다시 룰런셀러로 정착하고 있다.



최근들어 일본서점에서선 품질된 책을 다시 찍어낸 '리바이벌컬렉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일본 최대의 서점인三省堂의 매장풍경.

한편 角川書店은 자신의 출판문고 가운데 고전 명저로 꼽히는 작품을 복간한 '리바이벌 컬렉션'을 판매하고 있다. 복간된 책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이 角川書店 편집관계자의 말이다.

절판될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책이 복간되어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자 일본 출판계 일각에서는 출판유통전체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언제든지 읽힌다는 철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전중에서도 좋은 것은 역시 읽힌다는 사실은 많은 독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임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출판관계자들도 있다.

일본 출판계에서 일고 있는 복간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원고가 없어 내용이 부실한 책을 울며겨자먹기로 내기도 하는 우리 출판계도 한번 기획해볼 만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日, 문고본에 바코드 도입

일본 출판사들이 일반도서에서 앞서 문고판에 바코드(Bar Code)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연말부터 新潮社, 集英社 등 6개 출판사들은 문고판 책 뒤표지에 바코드를 인쇄하기 시작했고 角川書店 및 講談社 등도 곧 문고판에 바코드를 인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출판물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바코드

보급이 뒤지고 있지만 주문 송품 반품처리 등 지금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존했던 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문고판에도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연말 문고판에 바코드를 도입한 출판사는 新潮社, 集英社 외에 中央公論社, 東京創元社, 早川書房, 光文社 등 6개 출판사. 이와함께 徳間書店과 角川書店도 문고판 바코드 도입을 결정했으며 講談社도 새해부터 바코드를 책 뒤표지에 인쇄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은 노동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나머지 일본 출판사들도 대부분 올해 안에 문고판에 바코드를 인쇄할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고판 도서에 인쇄된 바코드는 모두 '書籍 JAN'이라는 코드네임에 이어 상하 2단으로 되어 있다. 상단에는 출판사이름, 상품번호가 기록되어 하단에는 분류코드와 정가가 표시된다. 그동안 일본 출판계는 △다품종소량판매대상인 출판물에는 적합치 않다 △디자인 면에서 보기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바코드를 인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일이 사람들의 잔손에 의존해온 송품 반품 등의 작업이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무게는 다양하지만 형태는 일정한 문고판 도서부터 바코드를 도입, 오토메이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서점 모두가 바코드판독기를 사용한 POS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바코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해들어 ISBN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판계들도 바코드와 ISBN표시를 한꺼번에 도입, 불필요한 노력을 낭비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시장에 진출하는 美 유명誌들

미국인들의 생각이 과연 소련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수십년간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대변해 온 「리더스다이제스트」(READER'S DIGEST)가 새해에는 러시아인에게 아메리칸드림(American Dream)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더스다이제스트사(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는 최근 러시아판 「리더스다이제스트」를 올 8월부터 2년동안 시험제작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세계 39개국에서 15개 언어로 매월 발행되고 있는 리더스다이제스트誌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거대한 소련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 출판사들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간경제지 「비즈니스위크」는 이미 지난해 여름 러시아판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또 「레디스·홈저널」(The Ladies Home Journal)誌는 지난해 11월호에 32페이지

지가량의 러시아어 특집을 끼워넣어 1만부를 소련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로데일프레스(Rodale Press)도 이미 「뉴 파머」(New Farmer)라고 명명된 러시아어판 잡지를 소련에서 발행한다는 계획을 공표해놓고 있다. 저널 오브 커머스(The Journal of Commerce)社도 1월부터 러시아어로 된 타블로이드판을 월간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트레드 퍼블리셔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Trade Publisher International Data Group)도 「PC월드」「매너저」誌 등 2~3권의 잡지의 러시아어판을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잡지발행인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미국」誌와 「가이드포스트」誌 역시 러시아어판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미국 출판사들이 앞다퉈 소련진출에 열을리고 있으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美 출판관계자들은 소련에서의 출판사업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소련의 사정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식량난과 더불어 물자난이 계속되고 있다. 출판관련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소련에서는 책만드는 데 절대불가결한 종이공급이 달린다. 뿐만 아니라 인쇄기술도 서구 수준에는 형편없이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잡지를 발행해내더라도 소련의 배급체제로 제대로

공급이 될지도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출판사들이 소련에서 사업을 펼칠 경우 가장 심각하게 부딪혀야 하는 문제는 소련의 루블貨가 아직 다른 외국통화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소련에서의 출판사업은 밀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리더스다이제스트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진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조지 그린 리더스다이제스트社 회장은 지난 2년동안 소련시장에 대한 스테디를 해왔으며 소련 정부관리들과 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소련에서의 리더스다이제스트誌 발행의 편집권이 완전히 보장될 것이며 소련 당국으로부터 검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간으로 발행될 예정인데, 첫해에는 5만부를 가판대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발행부수를 2년안에 10만부로 확장할 방침이다.

러시아어판, 리더스다이제스트의 판형은 다른 해외판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며 표지에는 '리더스다이제스트'라는 제목이 영문과 러시아어의 기초가 되었던 시릴문자로 표기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그린회장은 미국판 리더스다이제스트誌에 실린 기사를 러시아어로 번역 게재하는 편집 형태가 될 것이며, 아직 선입은 안됐지만 러시아어판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

고 있는 편집장을 소련에 파견할 것임도 밝혔다. 그러나 아직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기구독회원제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분량은 다른 해외판과 마찬가지로 매월 평균 1백60페이지 정도가 될 것이며 광고도 게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린회장은 시험발행기간이 끝난 후에 인기를 조사, 발행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리더스다이제스트誌의 소련 시험발행이 성공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소련에서의 다른 출판사업도 펼칠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말.

그리 밝지만은 않은 소련시장을 진출키로 한 것은 그동안 리더스다이제스트誌가 개인의 힘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해오면서 쌓은 저력이 밑받침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미국 잡지로 알려진 리더스다이제스트誌가 과연 소련인들에게 먹혀들어갈 것인가. 세계잡지사에게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출판계도 국제화시대 특히 韓蘇 밀월시대 개막을 앞두고 소련에서의 출판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일까.

DRTInternational

가장 늦게 시작했어도 가장 일 잘하는 저작권 중개 회사

지난 2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끝에 저희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본 이와나미(암파)를 비롯하여 미국 HarperCollins, Knopf, Simon & Schuster, 영국 Random Century, Penguin, Walker Books, 프랑스 Larousse, 독일 Droemer Knauer, 스페인 Parramón과 같은 세계에서

손꼽는 출판사 50여개사와 일본 Japan Uni Agency, 미국 Writers House, 영국 Marsh & Sheil과 같은 대형 저작권 회사들 20개사와 독점 또는 직접 저작권을 중개하는 국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 견본 및 92년 초까지의 최신 출판 정보와 자료를 분야별로 구비하고 있음.
- 자유로운 정보 열람
- 상세한 국제 정보 상담
- 전문적인 국제 중개 및 처리

뿌리깊은나무 국제 저작권 기관

DRTInternational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빌딩 6층 전화 745-3350 팩시밀리 745-3612